



젠더이슈 Gender Issue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2021년 제6호

K-콘텐츠, 웹툰·웹소설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문제

이주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

“웹툰·웹소설 속 성차별, 어떤 문제가 있나”

“웹툰·웹소설 제작현장의 성차별 실태”

“성평등 콘텐츠를 위한 창작자들의 도전”

“독자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그에 걸맞은

양질의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전문보기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이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동의 내역을 거부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대표전화 02-810-5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서비스현장 바로가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ot line 02-810-54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K-콘텐츠, 웹툰·웹소설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문제

이주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

매일 저녁 11시, 노란 'UP' 아이콘이 뜨자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인다. 웹툰 업로드 시간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대기'를 타는 일은 팬들에겐 일상이자. 종이로만 만났던 만화와 장르 소설은 이제 웹툰과 웹소설이란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콘텐츠 시장의 확대 이전부터 웹툰과 웹소설은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에서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 중이다. 웹소설과 웹툰은 대표적인 콘텐츠 IP로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천만 명의 관객을 사로잡은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이야기가 되었고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세계인의 안방으로 뺏어나가고 있다. K-콘텐츠인 웹툰·웹소설은 현재 한류 확산의 중요한 요소이자 미래 문화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콘텐츠는 다른 이유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콘텐츠와 제작 현장의 성차별 문제가 그것이다.

[목 차]

- 웹툰·웹소설 속 성차별, 어떤 문제가 있나
- 웹툰·웹소설 제작현장의 성차별 실태
- 성평등 콘텐츠를 위한 창작자들의 도전
- 독자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그에 걸맞은 양질의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웹툰·웹소설 속 성차별, 어떤 문제가 있나

2020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어느 인기 웹툰의 연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여성인턴이 대기업 팀장과 성관계를 하여 채용된다는 내용의 웹툰 장면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재 중지를 요구했다. 여성의 일 경험과 역량을 폄훼하고 고용 사실을 왜곡하는 해당 내용은 많은 공분을 샀지만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 청원은 비록 동의자가 13만여 명에 그쳐 청와대의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이후 작가는 사과문을 올리고 작화를 일부 수정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세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플랫폼의 다른 웹툰에서 유사한 논란이 진행되었다. 독자들은 해당 웹툰에 표현된 도를 넘은 성폭력과 여성혐오에 대해 공론화 하였고 해당 작가는 결국 휴재에 들어갔다.



이와 반대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능동적인 여성상, 성평등한 전개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 여성서사가 출판 시장에 영향력을 끼친 것과 연계하여 최근 여성향(여성 독자를 주요 소비자로 한 작품 또는 작품의 성향) 웹소설 또한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이 각광을 받으며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황제와 여기서>와 같이 로맨스보다 전장에서 활약하는 주인공이 주목받으면서 여성기사물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 신데렐라 스토리가 주류였던 로맨스 장르에서 <재혼황후>나 <하렘의 남자들>처럼 권력자인 여성 주인공 이야기가 1억 다운로드를 달성하기도 했다.

영웅의 서사를 가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 주인공은 이제 크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독자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거나 ‘사이다(주인공이 노력하는 과정보다 성공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전개를 선호하는 경향)’스럽지 않은 여성 주인공의 서사에 너그럽지 않다. 소설 속에서 여성은 점점 더 성취를 위해 노력하면서 성적 욕망도 드러내지만 그것이 로맨스 장르의 문법이나 클리셰(진부한 문구나 생각을 뜻하는 프랑스로 창작물에서 자주 쓰이는 상투적인 전개 혹은 상황 등을 가리킨다)가 될 정도의 주류는 아닌 것이다. 로맨스 장르의 필수요소로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조신남 키워드가 등장했다고 한들 #나쁜남자가 쌓아올린 공든 탑은 아직 견고하기만 하다.

재단 유튜브 콘텐츠 ‘여성, 창작을 말하다 2020’ 중
웹소설 작가 밀발 발표장면 캡처



로맨스와 관련해서는 장르 분류체계도 문제가 있다. 웹소설은 작가부터 독자까지 성별선호가 굉장히 뚜렷한 콘텐츠 중 하나다.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이정열, 2020)에 따르면 남성이 즐겨보는 웹소설 장르로 판타지, 현대 판타지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가 1,2위를 차지했다.* 여성들이 주로 향유하는 장르인 ‘로맨스’는 이성 간의 연애를 다룬 소설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인공이 연애를 하지 않는 작품도 로맨스 카테고리에 늘어나고 있다.

대형 플랫폼에 연재된 작품 중에서 판타지 세계로 차원을 이동한 여성 주인공이 용병대를 경영하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는데, 연애요소가 없었음에도 로맨스 판타지로 분류되었다. 작가조차 이러한 분류를 몰랐고 독자들은 로맨스가 없는 작품은 판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의해 장르가 재단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성서사의 작품은 이처럼 시장에서 ‘순정만화’나 ‘로맨스 소설’과 같은 모호한 범주로 분류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로맨스 판타지’에 ‘여주판’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다. ‘여성이 주인공인 판타지물’을 뜻하는 이 단어는 ‘로맨스 판타지’에 비해 연애요소가 적거나 없는 판타지 웹소설을 구분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지 웹툰 장르 구분
소년/드라마/로맨스/로판(로맨스 판타지)/액션무협/BL·GL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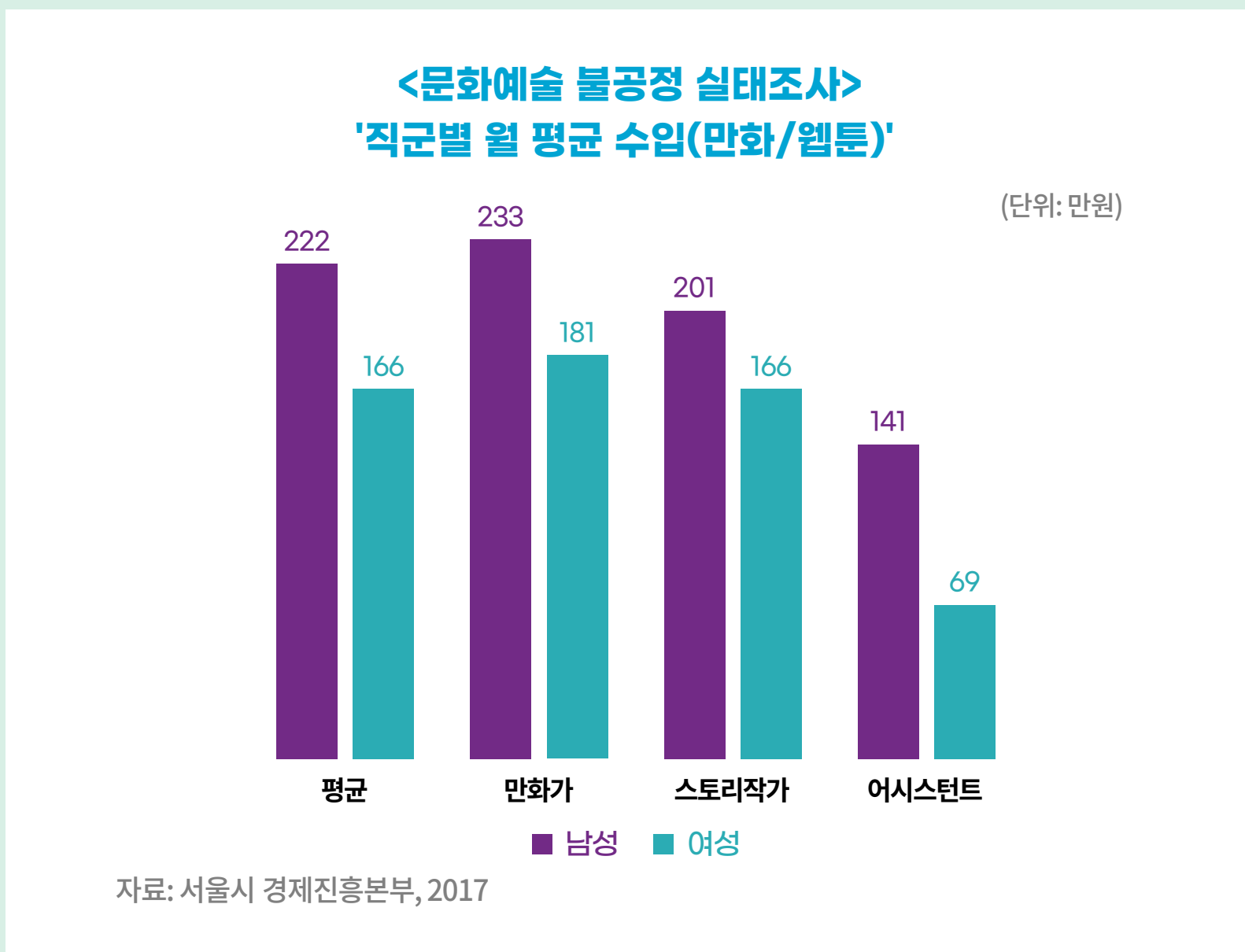
리디북스의 로맨스 장르에는 GL(여성간의 동성애)과 여주중심(연애요소가 적거나 없고, 사건이나 활약상 중심) 키워드가 함께 있다



* 평소 즐겨보는 웹소설 장르(1+2+3순위)를 묻는 질문에 남성의 75.7%는 판타지, 55.8%는 현대 판타지, 여성의 67.7%는 로맨스, 66.2%는 로맨스 판타지라고 응답했다

웹툰·웹소설 제작현장의 성차별 실태

2017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화·웹툰 분야 예술인 월 평균 수입은 남성작가 222만원, 여성작가 16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작가의 소득이 남성작가의 74.8%에 불과하고, 어시스턴트처럼 근로형태가 취약할수록 성별임금격차는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2020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김태영, 2020)에서도 최근 1년 이내 연재를 한 남성작가 평균 연간 총수입은 5,579만원인 반면, 여성작가의 경우 4,423만원에 그쳤다. ‘순정만화’와 ‘소년만화’로 나뉘었던 출판만화업계의 성별임금격차가 고스란히 웹툰 업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문제 또한 심각하다. 웹소설·웹툰 작가라면 주로 혼자 일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다른 동료 작가, 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연결망 안에서 성희롱이나 외모평가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는 여성작가에게 일어난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얼굴을 공개한 여성작가의 경우, 성희롱에 노출되기 쉽다. 유명 예능에 출연했던 인기 웹툰 작가의 경우에도 자신을 성매매 여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이러한 추측에 환멸이 난다고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11월에 실시한 성평등 창작자 간담회에 출연한 여성작가의 50% 이상이 초상 노출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였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 분명한 악플과 스토킹에 대한 염려로 방송은커녕 인터뷰 하나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재단 유튜브 콘텐츠 ‘여성, 창작을 말하다 2020’ 중 웹툰 스토리 작가 서이레 발표장면 캡처



만화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출판만화 <나, 여기 있어요> 디담, 브장, 2020



게다가 웹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란은 많은 작가를 위축시킨다. 2016년 한 게임사에 고용되었던 성우가 “왕자는 필요없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는 문구의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건은 게임계를 넘어 일러스트와 웹툰 작가들의 사상검증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이 ‘예스컷 운동’은 해당 성우를 지지하는 작가들의 목록을 만들어 연재 플랫폼을 탈퇴하거나 별점테러를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낙인’은 5년이 지난 2021년에도 현재 진행 중이다. ‘허버허버’ 등의 단어나 특정 손 모양을 사용한 웹툰의 별점테러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좌표(칭찬·비난 등을 독려할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링크를 공개하는 일)’를 찍어 ‘총공격(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동. 별점테러 등 비난을 목적으로도 사용한다)’을 호소하는 측은 웹툰에 등장하는 단어가 남성비하를 뜻해서 혹은 캐릭터가 취한 손모양이 2017년에 사라진 한 급진 여성우월 사이트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성평등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연재할 플랫폼을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9년 대한민국콘텐츠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은 고사리박사 작가의 <극락왕생>이나 2017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수신지 작가의 <며느라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성주의 서사와 작품성을 인정받고 상업적인 성과를 얻은 웹툰들도 처음엔 웹툰 전문 플랫폼에서 거절당하거나 ‘잘 팔리는 성인물’ 연재를 제안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작가들이 연재 방안을 모색하다가 오픈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연재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냈다. 창작자의 도전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좋은 결과를 냈지만 모든 창작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김태영, 2020)에 따르면 웹툰을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아닌 작가가 직접 제작부터 업로드, 홍보까지 하는 오픈 플랫폼 연재경험을 묻는 질문에 남성작가의 5.6%, 여성작가의 18.1%가 연재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작가의 세 배가 넘는 여성작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보장이 힘든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웹툰 전문 플랫폼이 평가하는 시장성 항목에 다양성이나 성평등이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성평등 콘텐츠를 위한 창작자들의 도전

웹툰 작가 들개이빨은 “여성-창작을 말하다” 인터뷰를 통해 남성창작자들이 오락성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성창작자들에게 도덕적 강박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장르의 문법이 중요한 웹툰·웹소설에서는 클리셰나 왕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럼에도 여성주의 서사와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콘텐츠는 매일 등장하고 있다.



1950년대 여성극을 소재로 한 <정년이>는 드라마화가 예정된 작품으로 여성서사를 주로 작업했던 서이레·나문 작가의 대표작이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 4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여명기>는 12명의 작가가 그린 여성 주인공 만화로 그 인기에 힘입어 정식으로 e-book과 도서로 출판되었다. 기존 플랫폼의 문법에서 벗어나 오픈 플랫폼에서 직접 작품을 서비스하는 작가들도 많다. 앞서 소개했던 <극락왕생>이나 수신지 작가의 <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양한 여성서사를 쓰는 김수오 작가는 <소녀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문학을 소개하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김휘빈 작가의 <추상의 정원>도 프랑스 혁명 이후를 배경으로 여성 주인공의 일과 로맨스를 그린 웹소설이다. 성평등 창작자 간담회에 참여한 밀밭, 김폴짝 작가도 로맨스 작품 속에서 여성 주인공의 주체성을 고민하고 있다.

여성주인공, 비로맨스 테마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여명기'



재단 유튜브 콘텐츠 '여성, 창작을 말하다 2020' 중 하이라이트편 캡처



100화씩 쌓인 연재량이 부담스럽다면 이용자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곳도 있다. 푸른미디어상으로 공익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 시상을 진행했던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영업’하고 있다. 웹툰, 웹소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유튜브, 팟캐스트까지 만나볼 수 있다. 헤이메이트의 <시스터후드>는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여성서사 작품을 매주 수요일마다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 그에 걸맞은 양질의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

‘PC함(정치적올바름)이 작품을 망쳤다’는 최근 문화 콘텐츠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누군가는 남성만 주인공을 하던 창작물에서 공감대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남성 주인공의 서사를 보고 자란 여성들은 <스타워즈>에서 레이가 라이트 세이버를 휘두르기만 해도 <스타트렉>에서 마이클이 우주공간을 넘나들기만 해도 새로운 충격을 받는다.** 여자아이에게도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백인남성 배우의 영역이었던 할리우드 영화 프랜차이즈의 주인공 역할도 점차 여성·유색인종·소수자에게 열리는 시대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와 문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웹툰·웹소설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라면 더욱 공감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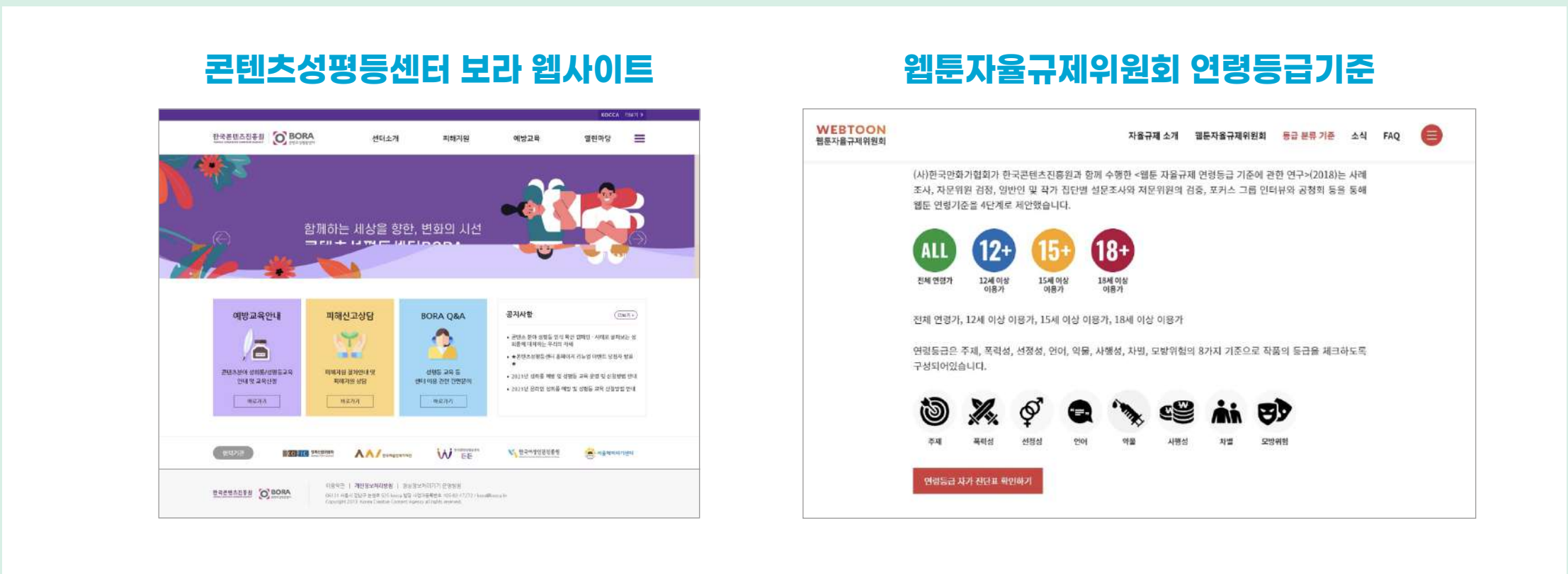
2015년 이후 독자의 경향도 많이 바뀌었다. 2013년 웹툰 <아랫집 시누이>와 2017년 웹툰 <며느라기>의 경우 비슷한 에피소드를 그렸지만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다. 2013년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린 며느리를 보며 천사라고 댓글을 남긴 반면, 2017년엔 분노를 표현한 댓글로 가득했다. 독자들의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재미있게 보던 콘텐츠가 불편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 대표적인 할리우드 영화 프랜차이즈인 <스타워즈>에는 최근 7~9편의 주인공으로 여성 캐릭터인 레이가 등장했다. 그 외에도 저항군 수장인 레아 장군과 빌런으로 등장한 캡틴 파스마 등 조력자나 연인 역할에 머물렀던 여성 캐릭터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이러한 독자들에게 호응하여 출판계를 시작으로 성차별과 비하표현이 수정된 개정판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독자에게는 그만큼 양질의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반응한 결과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시작된 성폭력 공론화 및 미투운동 이후,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에 개소한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콘텐츠 분야 종사자의 성폭력 피해지원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용역 당사자가 겪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피해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작품의 혐오표현이나 차별표현을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웹툰의 연령등급을 분류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단순히 선정성, 폭력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주제와 차별 요소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평등 K-콘텐츠의 미래를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노동환경과 불평등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성평등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창작자와 업계-독자-정부가 함께해야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한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보도자료] ‘저작권 뺏고, 대금 안 주고’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2017.6.13.)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 (김태영, 2020)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이정열, 2020)

2020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방인철, 2020)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안상원, 2019)

며느리, 비로소 말하다, 웹툰 <아랫집 시누이>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조경숙, 2018)

코믹스 페미니즘-웹툰 시대 여성만화 연구 (박희정&갱, 2018)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싸우는 여성 웹툰 작가 (참세상, 2021.03.04.)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만화계 성폭력 첫 공론화한 작가, 여전히 만화 그리며 잘 삽니다 (여성신문, 2021.01.17.)

넥슨,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 입은 성우 퇴출 논란 (한겨레, 2016.07.19.)

기안84의 연재 중단 요구가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경향신문, 2020.08.31.)

허버허버? 또 남녀갈등 싸움터 된 네이버웹툰, 이번엔 남혐논란 (조선비즈, 2021.04.26.)

"완전히 새로운 여신(女神)이야기, '극락왕생'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일보, 2020.10.23.)

웹툰 ‘며느라기’ 작가가 오픈마켓으로 간 이유 (미디어오늘, 2019.07.13.)

[‘여성-창작’을 말하다] “자기 멋에 취해 사는 여자가 보고 싶었어요!” (여성신문, 2018.08.27.)

“책 생명 늘려야죠”... 문학 속 ‘성차별’ 패치 떼는 출판계 (한겨레, 2021.09.15)

[영상] 여성 창작을 말하다, 2020 - 웹툰/웹소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